

나빌레라 연기 영상

일정 : 토요일 4월 1일 오전10시~ 오후 1시30분 (1시간 대본리딩 / 2시간 30분 촬영 예정)

장소 : 국민대학교 형설관

스크립트

상황

채록과 호범은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함께 꿈을 키웠다. 당시 축구부의 감독은 채록이의 아버지였다. 채록의 아버지는 심한 체벌로 축구부를 지도하다 고발당해 징역을 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축구부가 해체되면서 둘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채록은 이후 발레에 대한 재능을 찾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호범은 여전히 방황했다. 호범은 자신의 꿈이 무너진 것에 채록 탓을 하며 채록을 괴롭혔다. 채록은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 친구의 꿈이 무너진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호범의 괴롭힘을 받아줘 왔다.

그러다 호범이 또 다시 찾아와 채록을 괴롭힌다. 채록은 그 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이야기한다.

채록

(호범에 의해 채록이 밀쳐진다. 채록은 거친 숨을 몰아쉬다 호범을 노려본다. 훗김에 소리친다.)

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네가 아무리 괴롭혀도 이제 나 안 흔들려.

그러기엔 내 재능이 또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나 발레 잘해. 콩쿨 나가서 그랑프리 탈 거고

해외 발레단에 입단도 할 거야.

근데 너

넌 뭘 할 수 있는데?

(호범에게 조금씩 다가서며 말한다.)

맞아 아버지 때문에 축구부 해체된 거.

(격양된다)

근데 그게 전부야? 네가 실력이 없어서 갈 데가 없었던 건 아니고?

네가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실력을 키웠으면 2부리그든 어디든 갔겠지.
근데 너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무용원 가고 세종이가 공부해서 대학 갈 동안 넌 여전히 4년 전 그 경기장에 서있다고.
이래도 모르겠냐? 니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어.

의상 레퍼런스

너무 어둡지 않은 캐주얼한 긴 팔 상의 + 청바지 매치 (아래 사진 참고)

